

지역 매 아리

“대학입시, 아는만큼 보인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서는 자녀의 진로선택 및 목표달성을 위해 입시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지역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9월중 지평선학당 학부모 입시교실을 17일 지평선학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달 입시교실은 '2020년도 대입개편에 따른 주요대학 입시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정정래 명인예류 입시연구소 장으로부터 2020년도 입시에서 변화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전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주고, 자녀가 원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신성적관리,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동아리활동, 수능 대비를 위한 교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학부모에게 정정래 소장은 “입시정책이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신성적 관리를 잘해야 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비교과 활동,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입시전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 알고 조언을 해 준다면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독서동아리, 우수상 수상

완주군청 독서동아리 '삼소서방'이 제1회 파주복소리 독서동아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주군은 지난 15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 제8회 파주복소리축제 개막식에서 제1회 파주복소리 독서동아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서동아리 대상은 전국의 도서관, 학교, 직장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는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등 7개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완주군청 삼소서방(三笑書房, 많은 사람들이 모인 책이 있는 방)은 책을 좋아하는 완주군청 직원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2006년 5월 첫모임을 시작해 13년째 이어 오고 있다.

책 읽는 행복,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는다는 슬로건으로 매월 1회 독서토론회를 하는 정기모임과 문학기행, 봉사활동, 내 고장 알기 등 다양한 임시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과 김미경 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단단한 동아리로 성장해서 앞으로도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책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 문화를 널리 알리는 동아리로 남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 넘어 혁신도시 흠집내기

박성일 완주군수 성명서 발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사실과 다른 보도'에 경고



동지를 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본부장 채용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가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가 악취와 논밭에 둘러싸인 변두리이기 때문으로 폄하하는 보도를 냈고, 이를 일부 중앙언론에서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 것에 따른 것.

박 군수는 이 같은 언론보도 행태가 전북혁신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전북혁신도시 시즌 2의 주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사안임을 경고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미래 농생명 산업 메카이자 국제 금융허브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박 군수는 “대도시와 수도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인력과 그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편견과 황포가 벗어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완주군은 전북도와 정지춘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노력을 기할 것이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주민의 열망 속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흠집 내기 등 그 어떠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발전과 국민연금 자기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미래 농생명 산업 메카이자 국제 금융허브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박 군수는 “대도시와 수도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몇몇 기금운용인력과 그에 동조한 일부 언론의 편견과 황포가 벗어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완주군은 전북도와 정지춘 등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완성에 더욱 노력을 기할 것이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주민의 열망 속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흠집 내기 등 그 어떠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북혁신도시 발전과 국민연금 자기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에너지 기획단 워크숍이 지난 1일부터 3주간 진행됐다.

에너지자립 2030 비전 청사진

완주 에너지기획단 워크숍 5대전략 마련 정책발굴 다양

완주군 에너지기획단이 2030년 에너지 비전으로 '함께하는 미래! 행복한 에너지자립 완주!'를 제시했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3주간 진행돼 마무리된 완주군 에너지 기획단 워크숍에서 주민들이 2030년 에너지 비전으로 '함께하는 미래! 행복한 에너지자립 완주!'를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소비, 혁신, 나눔, 협치 5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10% 저감하고 태양광,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전력자립도를 22% 높인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되는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했다.

앞서 완주군은 '완주군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일환으로 52명의 에너지 기획단을 공개모집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에너지 현황, 에너지수요 전망, 에너지 자립·전환 정책 등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으며, 완주군에 주요 결과를 전달했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에서 처음으로 마련 중인 에너지계획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요 방향과 목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로컬에너지 완주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주민들이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완주군 에너지계획의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단계적 실행방안까지 포함 예정이다. 에너지 기획단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10월 보고회를 통해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4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운영보고회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사회보장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운영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파악해 2019년부터 향후 4년간 김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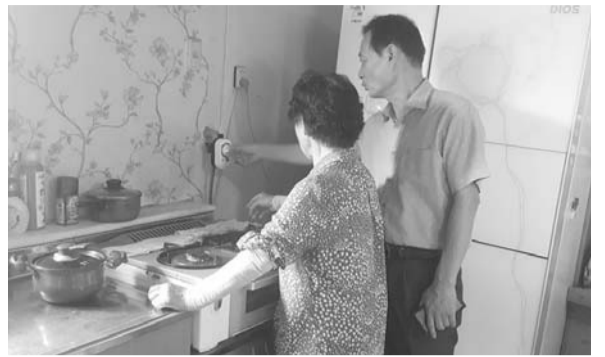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TF팀을 구성했고 지난 4월부터 운영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역의 복지욕구와 자원을 분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와 4대 추진전략과제에 16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48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보고 주요내용 발표 후 참석자들에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전략과제를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사회복지가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저소득층 25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읍면동 복지기동대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설치했다.

가스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앞장

김제 복지기동대 자원봉사 250세대 '타이머 콕' 설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18년도 복지기동대 특화사업으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25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를 읍면동 복지기동대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설치했다.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설치 는 김제시 특화사업으로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추진해 주민복지과장(서상원) 중심으로 2인 1조로 설치한 가정에 방문해 안전한 가스사용방법을 전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1인당 저소득계층 1세대를 발굴 추천하고 직접 설치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가스·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내 이웃을 살피고 지켜 생활안전에 기여했다.

연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가 자동 차단돼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와 화재발생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장치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또 자원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고 있는 읍면동 복지기동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시 복지기동대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기용품(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등)교체 및 수리, 가스·보일러 점검 및 수리, 단열·방풍작업, 상수도·하수도·화장실 배관 점검 및 수리, 그 밖에 소규모 집수리 및 청소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경제도약' 행보 본격화

봉황농공단지 기업인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박준배 김제시장이 지난 14일 봉황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봉황농공단지 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 자리를 가지며 경제도약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황농공단지 입주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지 내 기업들의 지원방안과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봉황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김창호)은 “평소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과과의 이번 간담

회가 기업들에 큰 활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 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로사항을 모두 취합해 관련 부서에 검토 지시를 해 최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사항을 파악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주간 산업단지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거쳐 기업인들과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동계나대위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내버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